제271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 답변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
(일괄질문 · 일괄답변)입니다.

박 주 화 의원

“대전천 정비사업이 시급합니다”

“대전여성가족원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공공도서관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 주 화 의원

◉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의 현안 사안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대전천 정비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3대 하천 중 하나인 대전천은 이미 국가하천으로 관리되던 갑천과 유등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하천으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전천은 전국 국가하천 중 하상도로가 있는 유일한 하천입니다.

물론 하상도로로 인한 교통편익이 있지만 구조적 문제로 해마다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또한 대전천 천변은 떡밥을 미끼로 한 낚시가 금지되어 있지만 떡밥 낚시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쓰레기를 어질러놓고 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하천 주변 청소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나마 대전천의 일부 구간이 2020년에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하천정비 · 유지 · 개선 사업에 국비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반가운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의 핵심사업인 대전천 통합하천사업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7년까지 18개 사업에 3,514억 원이 투자되어 친환경 명품하천으로 바뀔 것이라는 시장님의 발표였습니다.

대전천은 앞으로 하상도로, 인공보, 호환블록 등이 사라질 예정이며 보다 합리적인 수계관리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 수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수 · 치수 · 환경 · 친수 · 도시교통 등 5대 분야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천 전 구간 수질이 1급수로 개선되고 대청호 원수를 1일 4만 톤씩 끌어올려 하루 10만 톤의 풍부한 수량을 유지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상도로 대체시설로 제방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에도 제방 여유높이가 1m 이상 확보되는 등 대전천이 안전한 하천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시의 이러한 계획과 비전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큰 기대가 됩니다만 10년을 바라보고 있는 장기계획에 밀려 지금 당장 필요한 하천시설 정비, 청소관리 등 필요사업이 소홀해지지는 않을까, 또 이로 인해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6월 말이면 장마가 시작될 것이고 여기에 올 여름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대전천은 또다시 범람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시장님!

저는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현재 필요한 정비사업도 함께 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천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아직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전천 일부 구간도 국가하천으로 조속히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명품하천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대전천 통합하천 사업 발표가 나온 지 반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먼저, 이 거시적 사업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린 대전천 하천시설 정비, 홍수대책 방안, 청소관리 필요성과 대전천 일부 구간 국가하천 승격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천의 태봉보 철거사업을 시작으로 3대 하천에서 인공보가 하나둘 사라지면 점점 더 많은 종류의 멸종위기종이 대전의 하천에서 발견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일류 환경도시 대전의 비전이 실현되길 기대하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원 조직진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5년 조직개편을 통해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여성가족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현재 대전에는 본원을 비롯해 동부, 남부, 북부 등 총 4곳의 여성가족원이 있습니다.

조직개편 당시 대전시는 평생교육문화센터가 하고 있던 평생교육기능을 여성가족원이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여성역량 강화와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남성 · 아동을 포함한 가족 전용공간 활용 등을 목적으로 기능개편을 계획했습니다.

조직개편이 논의될 당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이 늘어났고 2011년 출범한 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의 명칭 혼선과 기능 및 역할 중복에 대한 기능 재정립 등 사회적 요구에도 대응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민선 6기 약속사업의 하나였던 여성 전담기관 설치가 함께 맞물리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행정과정이 논란이 됐었고 시민의견 수렴 결과 시민의 공감을 받지 못했던 여성가족원이라는 명칭으로 조직이 개편된 지 벌써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장우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전면적인 조직개편으로 민선 8기 시정방향의 큰 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제는 사업기관의 기능점검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여성가족원의 교육과정은 전문지도자 양성, 직업훈련, 가정친화 및 역량 강화, 문화아카데미 등 총 4개의 과정이 운영 중입니다.

2015년 조직개편 전 평생교육문화센터 과정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취업 · 창업과정, 실용생활과정, 예술교양과정, 건강과정, 어학과정, 가정친화과정이 운영되던 그 당시에 비해 어떤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과정을 구분하는 카테고리의 명칭이 조금 달라졌을 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여성의 이름이 붙은 조직명칭 때문에 사회적 시선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2020년에 발표한 대전여성가족원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한 여성의 요구들이 다층화되고 있고 글로벌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성주류화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우리 시 여성가족원의 목적은 여성발전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평등이라는 사회적 · 시대적 요구, 다양한 지역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여성가족원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층적 관점의 접근과 연구 역시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여성가족원이 하고 있는 주된 사업이 여전히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고 조직개편 당시 추구하던 정책목표가 2023년 현재에도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여성가족원의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조직진단을 통해 현재 여성가족원의 역할과 기능을 면밀히 분석한 후 개편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성가족원에 대한 정밀한 조직진단을 해주시고 조직진단 후 여성가족원 명칭 변경을 포함한 조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3년 6월 현재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현황을 보면 대전시에서는 한밭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동구 6곳, 서구 5곳, 유성구 7곳, 대덕구 3곳 등 총 24곳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대덕구 석봉도서관과 유성구 전민도서관도 개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설립 예정인 제2시립도서관인 동대전시립도서관은 지난 3월 14일 첫 삽을

뜨고 2024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구 관저동에도 제3시립도서관 건립추진 소식이 들리면서 대전에는 총 3개의 시립도서관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한밭도서관을 제외하고 중구에는 공공도서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1989년에 한밭도서관이 건립된 이후 한밭도서관이 있다는 이유로 중구 지역엔 오히려 단 1곳의 공립도서관도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중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구 중촌벤처밸리 내부 기반시설로 지역 내 도서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은 시민 삶의 질과 바로 연계되는 공간입니다. 큰 규모의 좋은 도서관 1곳도 중요하지만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의 공공도서관이 시민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을 때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됩니다.

대전광역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대전은 시민 1인당 장서 수가 2.2권으로 8대 특·광역시 중 1위이고 대전지역 도서관 1곳당 대출 권 수도 전국 1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도서관 1곳당 대전 인구수는 5만 5,856명으로 전국 평균 4만 2,747명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대전시에 더 많은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중구는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가 7만 6,780명으로 대전 평균에 비해서도 훨씬 높습니다.

향후 다른 지역의 도서관이 늘어나면 중구 도서관 1곳이 감당해야 하는 인구수는 상대적으로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시장님, 시민 삶의 질과 연결되는 공공도서관 확충이 필요합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민선 8기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중구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전시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박주화 의원님께서는 대전천 정비사업, 여성가족원 조직진단,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특히 문화시설 확충에 노력해 주시는 박주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의 정비사업 관련해서 장기적인 플랜도 중요하지만 현재 필요한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도 공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등천이나 갑천은 유량이 대전천보다 풍부한 편입니다.

특히 대전천은 상류 지역의 산들이 물을 빨아들이는 산들로 있어서 사실 대전천이 장마철 지나고 나면 유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성효 시장님 때 한밭대교인가에서 펌핑해서 물을 흐르게 했는데 이쪽의 물이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흘러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예산 대비보다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대전천은 특히 동구와 중구를 중간에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유등천, 갑천과 함께 대전의 3대 하천의 근원이고 그래서 3대 하천 전체를 명품으로 계속 가꿔나가는 것은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12월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을 저희가 수립했고 대전천 정비사업에 포함됐습니다.

3대 하천 푸른물길 선도사업은 대전천 데크 정비나 바닥 포장, 제방 복원 등 이런 것을 계속 정비를 해오고 있고요.

2027년까지인데 사실은 이게 좀 시간이 길게, 멀게 느껴집니다.

대전천 통합하천사업이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514억을 들여서 5대 분야 18개 세부과제를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천을 친환경 명품하천으로 꾸미고 또 한편으로는 재해 없는 하천으로 가기 위해서 강력한 실행력을 지금 확보했다고 보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 대전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대전천 하상에 지금 기형적으로 하상도로가 있는데 이게 광역시 정도에 있어서 하상에 도로가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데 아무래도 교통 문제 때문에 철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대체도로를 먼저 완성하고 하상도로를 철거하는 순으로, 최종적으로는 대전천도 하상도로가 없는 완전 친환경 하천으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대신에 시민들 불편,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 교통정책을 하고 후 하상도로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40억 원 정도 확보해서 하천 시설물들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고요, 또 매년 12억 원으로 연중 상시 전 구간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니다 보면 대전천에 지저분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고, 사실은 저도 시장이 되기 전에 둔산에서 대전천을 많이 걸어봤기 때문에 실태를 직접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도 간부들하고 한번 가서 직접 보면 충분히 정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지 않으면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가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상당히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어느 곳에 대개 어떤 물들이 어떻고 어느 시기에 어디가 고여서 썩고 이런 것들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어쨌든 대전천을 신속하게 친환경 하천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대전천에 하수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원천적으로 오염원을 차단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훨씬 더 깨끗한 천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청호 물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최상류 지역으로 해서 사계절 일정 수위를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가볼까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질을 제대로 깨끗하게 확보하고 유량을 늘려주고 환경을 제대로 가꿔서 대전천도 명품하천으로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천이,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 때 지금 경기도지사 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 부총리 때 국가하천으로, 특히 유등천 합류지점에서 동구 대성동 합류지점까지, 절암천 합류지점까지 한 7.86㎞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때 국가하천으로 2020년도에 승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최종 잔여구간 13㎞가 조금 넘습니다만 지난해 12월에 환경부에 국가하천 승격 건의를 했고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국가하천이 되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들 이런 것들 국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만 평상시 관리할 때 우리가 거기에다 좋은 시설을 넣어야 될 때 꼭 중앙정부,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 예산이나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는 국가하천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나머지 하천도 국가하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여성들만 이용하는 시설, 저는 이건 아주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가족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여성들, 가족들, 부부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남녀 양성평등에 대한 대전환이 있었고 또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원, 그동안 남녀 평등분야에서 남성들 중심의 여러 가지 정책이 되어 왔었고 어느 조직이든 남성이 더 굉장히 숫자도 많고 또 주요 정책결정을 하는 부분에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으로써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균형이 맞춰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부족한 정책은 서로 보완해가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성가족원의 시설들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만 여기에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정책을 소홀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시설을 보다 시민들, 남녀가 골고루, 가족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평상시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또 이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요.

의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성가족원 부분은 앞으로 기능과 조직, 인력 그리고 특히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한번 이에 대한 개편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성가족원에 특히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제과제빵, 한식조리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운영하고, 시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에 모든 분야의 민간영역까지 다 들여와가지고 여기서 자격증반을 운영하면 민간영역에서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학원들 이런 데는 다 망하는 거거든요.

바리스타 학원도 다 망하는 것이고 제과제빵 학원도 다 망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원이든 평생학습진흥원이든 민간영역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케이스의 어떤 영역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간영역을 최대한 살려 주면서 민간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여성가족원 문제도 한번 시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해보고 또 시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한번 시민들 전체가, 이 기능이 확대 개편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원에 엄마하고 아들딸도 같이 가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개편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의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좋은 도시를 위해서 1동 1도서관 체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나아갈 때 전체 도서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 기능의 도서관이 필요하고 또 기존의 도서관 개념이 과거에 책을 빌려 보고 거기에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고 이런 기능보다 시민들이 평상시에 가서 교류하고 함께 이용하고 다양한 시설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서 여러 가지 모임도 할 수 있는, 요즘 새로운 기능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도서관 대부분이 아직도 과거의 도서관 기능에 상당히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건립하고 있는 동대전시립도서관이나 관저에 하려고 하는 제3시립도서관이나 앞으로 설립되는 도서관들의 기능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개편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담당국장이나 과장도 전국의 도서관들 계속 바라보고 또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의원님들께서도 여건이 되시면 전국에 시립도서관 운영하는 도시 중 가장 기능이 뛰어난 도시들 한번 함께 공무원들하고 보시면 훨씬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 지금 24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올해 두 곳, 특히 유성구하고 대덕구에 하나씩 하게 되고요.
2025년에 동대전시립도서관이 개관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관저에 제3시립도서관

그리고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중앙도서관 성격의 최고 시설과 어떤 기능을 갖춘 도서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뭐냐면 도서관들이 국비지원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를 감안해서 도서관을 설립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중구 의원님이시니까 중구 걱정을 하시는데 중구는 어쨌든 대전 최초의 시립도서관이 중구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문학관 조성을 위해서 헐지 않고 리모델링하기로 했고, 한밭도서관이 어쨌든 시립도서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기능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구지역에 구립도서관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구청장님도 지금 중구에 도서관 건립을 검토하고 계신데 중촌동에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원 땅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음악전용공연장, 시립미술관들로 특화하기로 정해서 중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중촌동에 하고 싶어하시는데 좀 더 위치를 서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중구 구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넓히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1동에 1도서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구청장 할 때 자양동주민센터,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이름도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홍도동 옛날 주민센터 그곳에 도서관을 결합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민센터를 새로 지을 때 거기에 도서관을 넣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서직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사서직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개방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부 시민들, 도서관 사랑하는 분들 함께해서 일부 정책으로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앞으로 전 동에 도서관 확충하는 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구에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앞으로 기왕에 도서관을 지으려면 정말 시민들이 가서 책을 빌려 보고 책을 반납하고 또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중간고사나 이런 거 볼 때 가서 공부하는 이런 도서관이 아니고 그런 도서관을 훨씬 뛰어넘어서 시민들이 늘 가고 싶은 이런 곳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위치나 이런 걸 해주시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시의원님들도 시의회에 있으십니다만 저는 항상 지방자치는 우리 스스로 일군다는 기본 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개 구는 5개 구청장 중심으로 정책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이런 정책개발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우면 시에 지원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가 일방적으로 내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구의 이런 도서관 문제도 중구청장님이나 중구의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시에 협조요청을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능하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